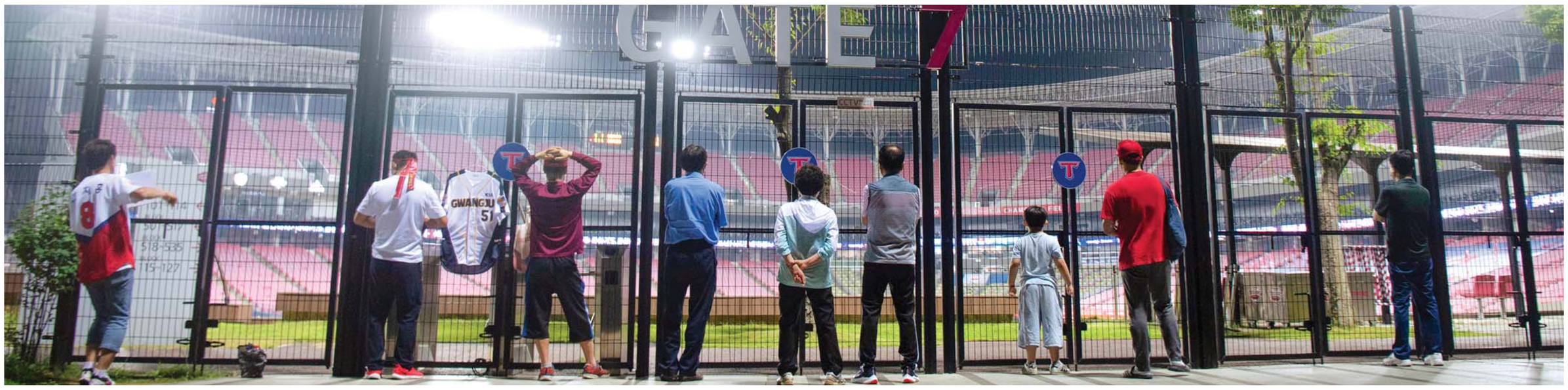
철망 밖에서라도 … 못말리는 팬심



KIA 타이거즈 팬들이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 기아 챔피언스필드 외야 게이트에서 KIA와 KT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챔스필드는 이달 중 관중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광주지역 코로나19확산으로 무산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KIA 마운드 '다시 초심으로'

양현종, 한달 째 무승
문경찬, NC전 역전패 충격 딛고
하체 단련·쉐도우 피칭 훈련 재개
기초부터 다지며 절치부심

KIA 타이거즈 에이스와 마무리가 '절치부심' 반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잘 나가던 KIA 마운드에 최근 제동이 걸렸다. 양현종이 지난 4일 NC원정에서 4.1이닝 8실점을 기록하는 등 지난 6월 9일 이후 승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선 6월 21일 삼성전에서도 홈런 두 방을 내주면서 4이닝 8실점(7자책점)에서 등판이 멈추는 등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완벽하게 KIA 뒷문을 수성했던 문경찬도 6월 23일 롯데전에서 시즌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되는 등 최근 세 경기에서 3실점을 하면서 2패를 남겼다.

양현종은 로테이션 그대로 다음 등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경찬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문경찬은 지난 7일 팔꿈치 근육통 증세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경찬은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큰 부상이 아닌 만큼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하며 심신을 추스르게 된다.

양현종

문경찬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3연패에 빠진 지난 7일. 경기가 끝난 뒤 나홀로 외야로 향한 선수가 있었다. 잠시 뒤 양현종의 쉐도우 피칭이 시작됐다. 3루 폴 앞에서 시작된 양현종의 쉐도우 피칭은 1루 폴까지 이어졌다.

양현종은 "아직 부족하다. 계속 해야 한다"며 초심으로 기초부터 다시 잡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8일에는 불펜에서 공을 던져보면서 양현종은 부진 탈출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문경찬도 하체에 초점을 맞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고 있다.

7일에 이어 8일에도 외야 폴을 오가면서 러닝에 공을 들인 문경찬은 3루에서 훈련도 진행했다.

1루에서 서재응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송구 연습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문경찬은 "하체를 활용해 던지는 훈련이었다. 코치님들께서 스케줄 짜 준대로 잘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위기 타파를 위해 초심으로 기초부터 다지고 있다.

두 축이 안정세를 찾기까지 '임시 마무리' 전상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전상현은 하던 대로 집중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전상현은 앞선 NC전 충격의 끝내기 역전패에서 연속 볼넷 뒤 스리런을 맞으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문경찬이 호흡을 고르는 동안 불펜을 굳게 지키면서 흔들리는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전상현은 "부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연속 볼넷이 몇 번 나왔다. 볼넷이 가장 아쉽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안 좋았던 것 같다. 여름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힘이 떨어진 느낌은 아니다. 구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더 걱정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마무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려고 한다. 어차피 1이닝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하겠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시 마무리'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치 지키던 이강인 '날 좀 보소' 극장골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8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홈경기에서 후반 43분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리고 있다. 〈발렌시아 페이스북 캡쳐〉

9개월 12일만에 득점포 가동
발렌시아, 바야돌리드에 2-1 승
곤살레스 감독에 첫 승리 선물

출전 시간 부족으로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와 결별을 준비하는 이강인(19)이 벼락같은 '극장 결승골'로 새로 지휘봉을 잡은 보로 곤살레스 감독에게 첫 승리를 선물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강인은 8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 2019-20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43분 기막힌 왼발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내 팀의 2-1 승리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강인은 지난해 9월 25일 헤타페를 상대로 프리메라리가 데뷔골을 터트린 이후 9개월 12일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시즌 2호골을 기록했다. 날짜로 따지면 286일 만이다.

또 지난달 30일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은 보로 곤살레스 감독은 3경기 만에 마수걸이 승리를 따냈다.

더불어 발렌시아도 오사수나와 30라운드에서 2-0으로 승리한 이후 최근 1무 3패의 부진을 씻고 5경기 만에 승리를 맛보면서 팀 순위를 8위로 끌어올렸다.

출발은 발렌시아가 좋았다. 발렌시아는 전반 29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한 케빈 카메이로의 크로스를 막시 고메스가 반대쪽에서 쇄도하며 오른발 슛으로 볼의 방향을 바꿔 선제골을 뽑아내 앞서 나갔다.

전반을 1-0으로 마무리한 발렌시아는 후반 2분 만에 바야돌리드의 빅토르 가르시아에게 동점골을 허용,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발렌시아의 곤살레스 감독은 이강인을 후반 18분 카를로스 솔레르 대신 투입했고, 이강인의 교체투입은 '신의 한 수'였다.

곤살레스 감독 부임 이후 2경기 동안 벤치를 지켰던 이강인은 그라운드에 투입되자마자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고메스의 헤딩슛 시도를 끌어내며 발동을 걸었다.

무승부의 향기가 짙어지던 후반 43분 이강인의 극장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이강인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 2명을 앞에 놓고 강력한 왼발슛으로 바야돌리드 골대 오른쪽 구석에 정확하게 볼을 꽂았다. 이강인의 시즌 2호 골.

이강인의 '극장 결승 골'에 힘입은 발렌시아는 귀중한 승점 3을 챙기면서 승점 50을 기록,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출전권의 마지노선인 6위 헤타페(승점 53)와 격차를 줄였다.

라리가에서는 1~4위는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위는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6위는 UEFA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출전권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덕아웃 톡톡

'단타' 나지완 "이러다 한 번에 터지겠죠"

▲이러다 한 번에 터지겠죠 = 상대의 잇따른 호수비에 나지완의 안타가 단타로 둔갑하고 있다. 나지완은 7일 KT와의 첫 타석에서 외야로 큰 타구를 날렸다. 안타가 되는 것 같았던 타구는 중견수 배정대의 슬라이딩 캐치에 중견수 플라이가 됐다. 유독 나지완의 타석 때 상대의 호수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

나지완은 "내 타석 때 왜 이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다"며 웃은 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넷으로라도 출루를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다가 한 번에 몰아치기도 할 것이다.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 잘못이죠 = 7일 경기에서 임기영의 '숨'이 화제가 됐다. 이날 선발로 나온 임기영은 4회 1사 3루 상황에서 보크로 실점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항의가 나왔던 장면. 심판진은 "앞선 투구 때는 사인을 본 다음에 일어서 왼발을 빼고 바로 투구를 했다. 그런데 일어선 다음에 어깨를 떨군 동작이 있었다. 이를 이중동작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쉬는 과정에서 어깨를 떨군 부분을 이중동작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보크 선언 뒤 임기영은 두 팔을 벌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윌리엄스 감독 역시 항의 뒤에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8일 윌리엄스 감독은 "전 타석과 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선수들도 숨을 쉬어야 한다. 모든 공마다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판재량이고, 이미 판정이 나와서 다음에 집중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임기영은 "결과적으로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볼넷을 많이 줬다"며 "갑자기 제구가 흔들렸다. 좋은 것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 있으려고 해야죠 = KIA가 8일 KT 경기에 앞서 '사이드암' 투수를 교체했다. 전날 KT전에서 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해준 서덕원을 대신해 박정수가 엔트리에 등록됐다. 시즌 초반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을 했던 박정수는 6월 3일 NC와의 퓨처스리그 첫 등판을 시작으로 9경기에서 16.2이닝을 던지며 2.70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패 2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11.2이닝 무실점의 좋은 피칭을 하면서 콜업을 받았다. 박정수는 "제구와 변화구에 신경을 많이 썼다. 힘 빼고 던지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1군에 와서 기분이 좋다.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올렉·이후권,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올렉과 이후권이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9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남에서는 올렉과 이후권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올렉은 전반 12분 쥴리안의 골을 도우면서 4-0 대승의 발판을 놨다. 시즌 1호 도움이다.

이후권은 상대의 자책골을 더해 2-0으로 앞선 후반 35분, 추정호의 도움으로 시즌 마수걸이 골을 기록했다.

앞선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1-2로 지면서 정규리그 첫 연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9라운드 경기에서 화끈한 화력쇼를 펼치며 승점 사냥을 재개했다. 앞선 FA컵 경남FC와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4-0 승리이기도 하다.

올렉

이후권

한편 9라운드 MVP는 수원FC의 마사에게 돌아갔다.

마사는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3-0 대승을 견인했다.

/김여울 기자 wool@